

기술분석보고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아이오케이이엔엠(07886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주예령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오케이이엔엠(078860)

아티스트 IP와 영상콘텐츠 사업을 결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

기업정보(2026.07.23 기준)

대표자	최석우
설립일자	2000.04
상장일자	2006.06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주요제품	엔터테인먼트 사업

시세정보(2026.07.23 기준)

현재가(원)	2,995
액면가(원)	100
시가총액(억 원)	178
발행주식수	6,177,188
52주 최고가(원)	19,728
52주 최저가(원)	2,215
외국인지분율	1.04
주요주주	(주)다모아

■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기반 코스닥 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이오케이이엔엠(이하 동사)은 2000년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한 이후,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확장해 온 기업이다. 고현정, 김강우, 구혜선 등 20여 명 규모의 아티스트 라인업을 기반으로 매니지먼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회사 아이오케이스튜디오 및 매시브이엔씨를 통한 사업 시너지 구조를 갖추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으로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음반·음원, 매니지먼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출유형을 바탕으로 단순 매니지먼트 중심을 넘어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 아티스트 IP와 제작 역량을 결합한 콘텐츠 확장 기반

동사의 핵심 역량은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 자원과 콘텐츠 기획·제작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사업 구조에 있다. 총 22편 제작, 4편 투자, 누적 관객 2,500만 명 수준의 콘텐츠 이력과 26개의 슈퍼 IP 기반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통해 단순 출연 매니지먼트를 넘어 IP 확장형 수익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소속 배우 캐스팅과 자체 제작을 연계하는 구조는 콘텐츠의 완성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체계로 평가되며, 이는 아티스트 활동이 방송출연·광고 수익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음반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수익원 다변화와 사업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다.

■ 독립 경영 전환과 글로벌 공연 성과로 중장기 성장 강화

2026년 사명 변경 및 최석우 단독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독립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박지훈 아시아 팬콘서트 투어의 서울·말레이시아·베트남 전석 매진을 통해 글로벌 공연 사업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독립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자금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K-콘텐츠 수요 확대 흐름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216	14.02	-63	-29.12	-216	-100.11	-24.75	-17.48	46.08	-9,008	32,473	N/A	0.25
2024	241	11.46	-65	-26.83	-214	-88.72	-27.41	-20.34	23.65	-5,703	15,077	N/A	1.17
2025	122	-49.27	-80	-65.61	-174	-142.38	-23.34	-19.02	23.60	-2,959	11,567	N/A	1.01

기업경쟁력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제작의 결합 구조 확보

- 동사는 방송 및 광고 출연, 음반 및 음원 제작,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와 연계하여 콘텐츠 기획·제작 및 투자·배급 기능 확보
- 소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핵심으로 관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춰, 단순 매니지먼트 중심을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으로의 확장 기반 보유
- 고현정, 김강우, 구혜선 등 20여 명의 아티스트 라인업 및 2026년 박지훈 아시아 투어 완판 등 글로벌 공연 사업으로의 비즈니스 확장 본격화

콘텐츠 IP 확대와 제작 체계 고도화 추진

-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아티스트 IP 확보와 신인 아티스트 양성 체계 도입 추진
- 22편 제작, 4편 투자, 누적 관객 2,500만 명의 콘텐츠 이력, 슈퍼 IP 26개 기반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통한 사업 모델 확대 추진
- 15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2026.06)를 통해 독립 경영 체제 구축과 신사업 확대를 위한 재무 기반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운영 역량

- 배우·가수·예능인 등 다양한 아티스트를 발굴·육성·관리하여 방송, 광고, 영화, 드라마 등 다방면의 활동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역량으로, 동사의 대표 서비스인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에 적용

콘텐츠 기획·제작 및 투자·배급 역량

- 드라마·영화·예능·음원 등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투자·배급까지 연계하는 사업 역량으로, 아이오케이 스튜디오 등 자회사를 통한 영상콘텐츠 및 음원 관련 사업에 적용

<동사 소속 아티스트>



시장경쟁력

한류 기반 콘텐츠 시장 수요 대응력

- 국내외 한국 콘텐츠의 확산과 비영어권 콘텐츠 투자 확대 및 아티스트와 콘텐츠 결합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 수요에 대응

OTT·영상콘텐츠 확장 시장과의 접점 확보

- 2025년 엔터테인먼트업에 집중하여 매니지먼트, 방송, 영상콘텐츠, 음원,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등 콘텐츠 기획·제작 및 투자·배급을 통해 글로벌 종합 영상 콘텐츠 사업영역 확대 도모

캐스팅 파워 기반 콘텐츠 사업 확장성 보유

- 경쟁력 있는 유명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콘텐츠와 캐스팅 파워를 바탕으로 영상콘텐츠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어 시장 내 사업 확장성 확보

I. 기업 현황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

동사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방송, 광고, 음반·음원,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 및 투자·배급 기능까지 확보함으로써 종합 영상콘텐츠 기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2000년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한 이후,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확장해 온 기업이다.

2020년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지배구조를 재편하였고, 2021년 와이엔케이엔터테인먼트 합병을 통해 아티스트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2022년에는 아이오케이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연예인 지망생 교육 및 신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2023년 무상감자 20:1 실시로 자본구조를 정비하고, 2024년 스테이지원엔터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미디어 콘텐츠 및 AI 기반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목적을 확대하며 사업 다각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5년에는 액면분할 5:1을 실시하고 글로벌 종합 영상콘텐츠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2026년 아이오케이이엔엠으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동사는 기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기반으로 아티스트, 콘텐츠, 디지털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의 체계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2026년 6월 10일 공시에 따라 동사는 최석우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석우 대표이사는 (주)비비안(코스피 상장사)에서 팀장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비상장사 (주)광림에서 부장으로 2026년 3월까지 재직하며 관리 역량을 축적한 경영 인력이다. 코스피 상장사 및 관계사에서의 장기간 실무·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과 사업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영체계 구축에 강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동사는 향후 콘텐츠 사업 추진 역량과 경영관리 역량을 갖춘 단독대표 체제를 통해 사업 확장과 운영 효율화의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오케이이엔엠(078860)

■ 주주 현황

동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3월 31일 분기보고서 기말 기준 최대주주는 (주)디모아로 보통주 11,499,980주, 지분율 19.37%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인 (주)광림이 보통주 1,787,634주, 지분율 3.0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합산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은 13,287,614주, 22.38% 수준이다. (주)디모아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대표이사는 이혁수이며, (주)비비안이 동사의 주요 출자자 계열에 위치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22.38%로 지배주주 지분이 비교적 낮은 편이나, 현재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동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엔터사업부, 제작사업부로 구분되며, 세부 매출유형은 음반·음원, 매니지먼트, 기타(광고메이킹 등), 콘텐츠(영상물 제작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매출유형	품목	주요 사업 설명
엔터테인먼트	음반/음원	음악 청취용 음반 및 디지털 음원 제작·유통 수익
	매니지먼트	배우·가수·예능인 등 아티스트의 방송·영화·광고·공연 활동 출연료 및 관련 수익
	기타	광고메이킹, 행사 등 부가 활동 관련 수익
	콘텐츠	드라마·영화·예능 등 영상물 기획·제작 및 투자·배급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엔터사업부는 동사의 핵심 사업 축으로, 방송출연·광고 중심의 단기 수익모델에서 탈피하여 아티스트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현정, 김강우, 더원, 구혜선 등 인지도 있는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와이엔케이엔터테인먼트 합병을 통해 가수, 예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로 매니지먼트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작품 선별 및 활동 서포트, 맞춤형 스토리 IP 개발,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연기 아카데미 지원, 관계사 협업을 통한 활동 영역 확장 등 아티스트 IP의 발굴부터 콘텐츠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형

아이오케이이엔엠(078860)

매니지먼트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소속 아티스트 기반의 캐스팅 파워를 활용하여 드라마, OTT, 영화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니지먼트 부문에서 확보한 아티스트 IP가 영상 및 음악 콘텐츠 제작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유기적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아티스트의 활동이 방송출연·광고 수익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음반, 기타 콘텐츠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수익원 다변화와 사업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사 사업구조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그림 3. 동사 소속 아티스트



자료: 동사 홈페이지

제작사업부는 자회사 아이오케이스튜디오를 통한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및 투자·배급 기능을 담당한다. 동사는 22편 제작, 4편 투자, 누적 관객 2,500만 명 규모의 콘텐츠 실적과 26개의 슈퍼 IP 기반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바탕으로, 단일 작품 제작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과 형식으로 콘텐츠를 확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보원(2025), 우연일까?(2024), 미션 파서블(2021), 담보(2020) 등 대표 콘텐츠 실적이 확인되며, 소속 배우 캐스팅과 자체 제작을 연계하는 수익성 중심 구조를 통해 콘텐츠의 완성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6개의 슈퍼 IP를 기반으로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소속 아티스트 자산을 중심으로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사는 음악사업부를 별도의 성장축으로 운영하며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프로듀싱, 신규 아티스트 발굴, 글로벌 퍼블리싱 확대, 국내외 공연 연계 등 음악 기반 사업 확장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자회사 매시브이엔씨를 통한 OST 음원 제작 및 유통, 세계적 프로듀서와의 전략적 협업, 콘텐츠 플랫폼 및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유튜브 숏폼 및 OTT 콘텐츠 기획·제작 등을 병행하고 있어 음악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 친화형 사업으로 확장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음악사업은 단순 음원 유통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 제작,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향후 기존 매니지먼트 및 영상콘텐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시장 동향

디지털 유통 확대와 글로벌 K콘텐츠 확산에 따른 콘텐츠 시장 지속 성장

국내 콘텐츠 시장은 안정적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음악, 방송, 광고, 영화 분야 수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 성장에 따라 아티스트 IP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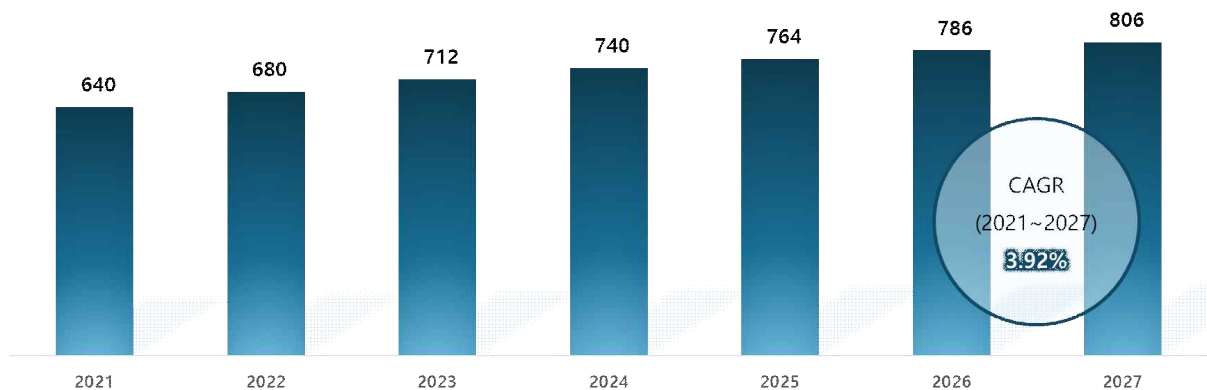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연계된 음악, 방송, 광고, 영화 등 콘텐츠 시장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과 음반·음원, 영상콘텐츠, 광고메이킹 및 영상물 제작 등이 결합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으로 판단된다.

국내 콘텐츠 시장은 음악, 방송, 광고, 영화 등 동사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2025)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21년 640억 달러에서 2025년 764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에는 80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3.9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시장은 급격한 변동보다는 구조적 확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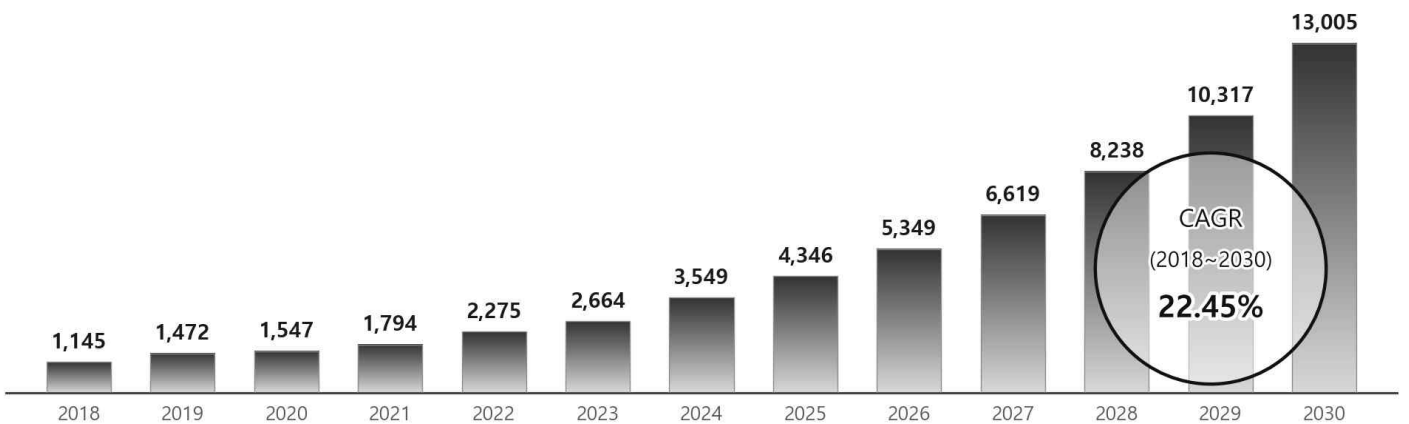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콘텐츠 산업 현황과 분야별 쟁점(2025), NICE평가정보㈜ 재가공

해외 시장 측면에서는 국내 콘텐츠 수출이 동사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음악, 방송, 광고,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성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2025)에 따르면, 음악 수출액은 2018년 564백만 달러에서 2025년 2,258백만 달러, 2030년 6,081백만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성장률 21.9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방송은 2018년 478백만 달러에서 2025년 1,310백만 달러, 2030년 2,690백만 달러로 증가하며 연평균성장률 15.49%를 나타내고 있다. 광고 역시 2018년 61백만 달러에서 2025년 715백만 달러, 2030년 4,148백만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성장률 42.14%로 가장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고, 영화는 2018년 42백만 달러에서 2025년 64백만 달러, 2030년 86백만 달러로 증가하며 연평균성장률 6.1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당 4개 분야의 합산 수출액은 2018년 1,145백만 달러에서 2025년 4,346백만 달러, 2030년 13,005백만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성장률 22.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동사가 영위하는 음악, 방송, 광고, 영화 관련 사업은 국내 기반을 넘어 해외 시장 확대 측면에서도 충분한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국내 콘텐츠 분야별 수출액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음악	564	756	680	775	928	1,223	1,852	2,258	2,753	3,356	4,091	4,988	6,081
방송	478	539	693	718	948	1,047	1,134	1,310	1,512	1,747	2,017	2,330	2,690
광고	61	139	120	258	328	338	503	715	1,016	1,444	2,053	2,918	4,148
영화	42	38	54	43	71	56	60	64	68	72	76	81	86
전체	1,145	1,472	1,547	1,794	2,275	2,664	3,549	4,346	5,349	6,619	8,238	10,317	13,00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콘텐츠 산업 현황과 분야별 쟁점(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콘텐츠 산업의 기술 개발 방향은 단순한 제작 역량을 넘어 IP 기획력, 디지털 유통 적합성, 플랫폼 친화적 포맷 대응력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음악 분야는 음반 중심에서 디지털 콘텐츠, 굿즈, 팬덤 플랫폼 등 IP 수익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방송·영상 분야 역시 글로벌 OTT 확산에 따라 제작, 유통, 후속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구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숏폼 드라마와 같은 신규 포맷이 부상하면서 저비용·고회전형 콘텐츠 제작, 모바일 친화적 편성, 빠른 수익화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이 새로운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기업들은 아티스트 및 스토리 IP를 기반으로 음악, 영상, 광고, 부가사업을 연계하는 복합 사업모델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사 역시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제작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경쟁 환경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를 중심으로 한 아티스트 확보 경쟁과 중견 콘텐츠 기업들의 제작 역량 고도화 경쟁이 병행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주요 경쟁업체들은 대규모 팬덤과 글로벌 유통망을 기반으로 음반, 공연, 영상, IP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숏폼, OTT 오리지널, 웹툰·웹소설 기반 콘텐츠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사는 대형사 대비 규모 경쟁보다는 소속 아티스트 기반의 매니지먼트 역량,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기능, 음악사업부 운영체계 등을 결합한 복합형 사업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기술분석

아티스트 IP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결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술력 확보

동사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역량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복합형 엔터테인먼트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와 스토리 IP를 연계한 콘텐츠 제작과 음악 프로듀싱, 디지털 플랫폼 확장을 통해 종합 콘텐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아티스트 IP 기반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기술

동사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역량과 영상콘텐츠 제작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역량을 보유한다. 소속 배우 캐스팅과 자체 제작을 연계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완성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총 22편 제작, 4편 투자, 누적 관객 2,500만명 규모의 콘텐츠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6개의 슈퍼 IP를 기반으로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단일 작품 제작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과 형식으로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표 3. 동사 주요 사업 역량



출처: 동사 홈페이지

대표 콘텐츠로는 정보원(2025), 우연일까?(2024), 미션 파서블(2021), 담보(2020) 등이 확인되며, 이는 동사가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축적한 아티스트 자원을 영상콘텐츠 제작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동사는 단순한 출연 매개 기능을 넘어 콘텐츠 기획, 제작, 투자, IP 확장까지 포괄하는 종합 영상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사 대표 콘텐츠



출처: 동사 홈페이지

■ 맞춤형 스토리 IP 연계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기술

동사는 아티스트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작품 선별, 활동 지원, 신인 육성, 콘텐츠 연계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매니지먼트 체계를 운영한다. 아티스트 성장에 최적화된 작품을 발굴하고, 소속 아티스트를 위한 맞춤형 스토리 IP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방송, 광고, 행사 등 개별 활동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활동 방향을 고려한 중장기 콘텐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또한 신인 아티스트 발굴과 연기 아카데미 지원을 통해 차세대 스타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사 협업을 통해 활동 영역 확장도 추진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아티스트 IP의 발굴, 기획, 육성, 콘텐츠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도화된 매니지먼트 역량으로 평가되며, 동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작용한다.

■ 음악 프로듀싱 및 디지털 콘텐츠 확장 기술

동사는 음악사업부를 중심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프로듀싱, 신규 아티스트 발굴, 글로벌 퍼블리싱 확대, 국내외 공연 연계 등 음악 기반 사업 확장 역량을 확보한다. 세계적 프로듀서와의 전략적 협업, 콘텐츠 플랫폼 및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베레이션, 유튜브 숏폼 및 OTT 콘텐츠 기획·제작 등을 병행하고 있어 음악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 친화형 사업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갖춘다. 음악 콘텐츠를 단순 음반·음원 유통에 한정하지 않고 숏폼, OTT, 공연, 브랜드 협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아티스트 IP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데 유효한 기반이 된다. 자회사 매시브이엔씨가 OST 음원 제작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음악 콘텐츠 제작·배급·유통, 음반 제작 및 유통, 각종 음향물 녹음 제작, 공연기획 및 제작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작부터 유통, 공연까지 폭넓은 기능 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대형 기획사 출신 경력직 인재와 분야별 전문 스텝진을 확보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전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기 위한 내부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6년에는 박지훈 아시아 팬콘서트 투어를 주관하여 서울·말레이시아·베트남에서 전석 매진이라는 실질적 공연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동사의 음악 및 공연 사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로 본격 확장되고 있다.

그림 7. 동사의 K-콘텐츠 및 OTT 확산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유튜브 숏폼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숏폼과 웹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OTT 콘텐츠

OTT 플랫폼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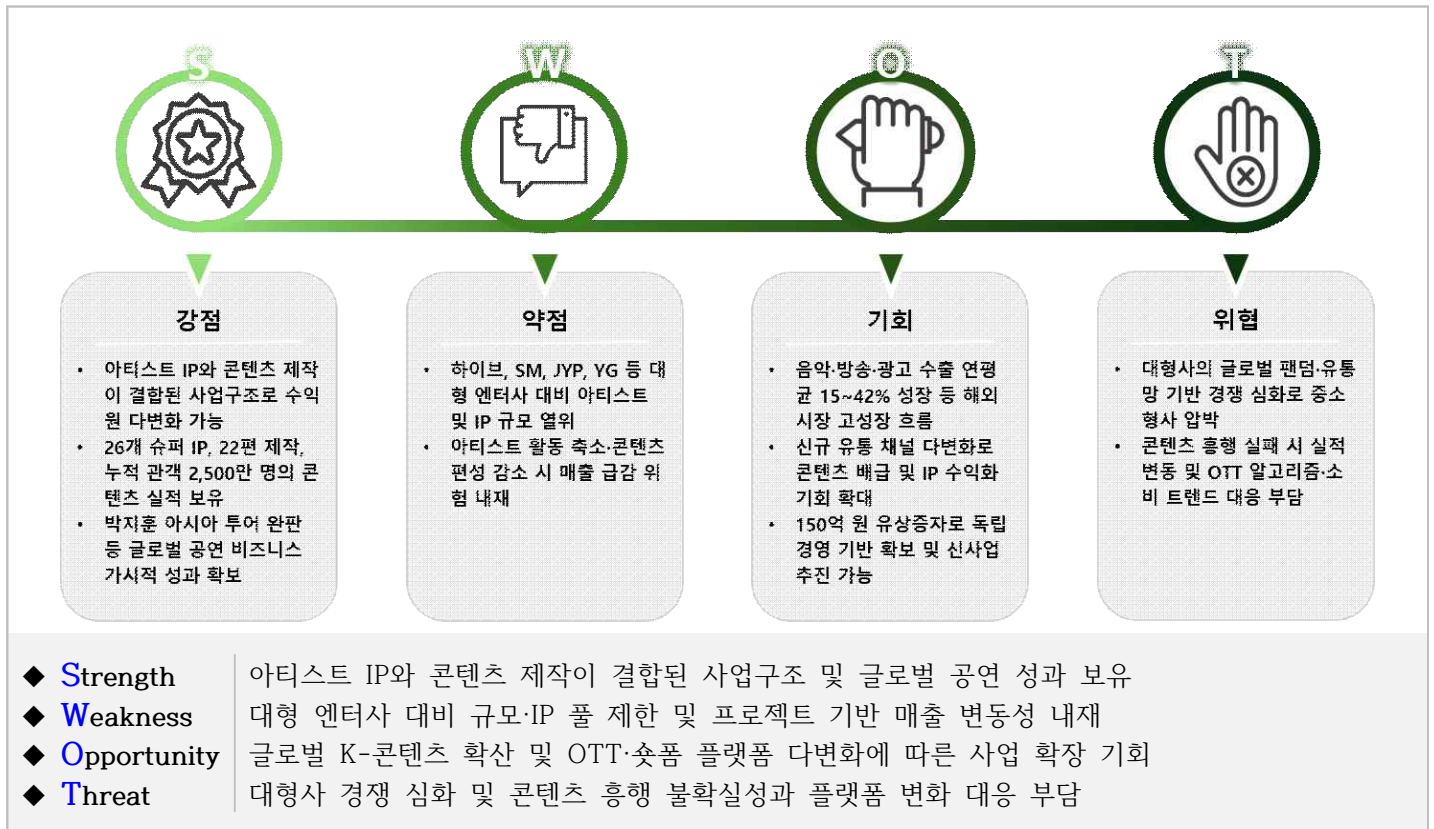
스포츠 비즈니스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매니지먼트, 마케팅 및 브랜딩을 총괄합니다.



국내외 공연 사업

국내외 공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글로벌 무대에서의 감동과 경험을 확장합니다.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콘텐츠 사업 재편기 진입, 재무구조 안정성 유지 및 신규 사업 영역 확장 추진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주요 아티스트 활동 조정 및 콘텐츠 사업 구조 재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3% 축소된 122.3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9.8억 원, 영업손실 13.8억 원, 당기순 이익 50.7억 원을 시현하며 전년 동기 대비 74.2% 축소된 흐름을 나타내었다.

■ 연예인 매니지먼트·콘텐츠 제작·투자사업 영위, 엔터사업 중심의 사업 구조 유지

동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엔터사업), 드라마·영상 콘텐츠 제작(제작사업), 투자 및 투자자문(투자사업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주)아이오케이튜디오·(주)아이오케이엠·(주)매시브이엔씨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전반의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구성은 엔터사업(80.4%), 제작사업(11.4%), 투자사업등(8.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엔터사업이 핵심 매출원이다.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216.2억 원에서 2024년 2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확대되었으나, 2025년에는 주요 아티스트 활동 조정 및 콘텐츠 사업 구조 재편의 영향으로 122.3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부문별로는 엔터사업 매출이 2023년 213.6억 원에서 2025년 98.3억 원으로 조정 흐름을 보였으며, 제작사업과 투자사업등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각각 13.9억 원, 10.1억 원으로 매출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 2024년 영업적자 지속, 2025년 사업 재편기 진입에 따른 손실 폭 조정

동사의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5% 확대된 241.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손실은 64.7억 원, 당기순손실은 213.8억 원을 나타내었다.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및 신규 사업 진입 비용의 영향으로 영업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제작사업과 투자사업등의 매출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2025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49.3% 축소된 122.3억 원을 나타낸 가운데, 영업손실은 80.2억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손실은 1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순손실 규모가 축소되었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4.2% 축소된 9.8억 원을 나타낸 가운데, 영업손실은 13.8억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은 5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흐름을 시현하였다.

그림 8.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아이오케이이엔엠(078860)

■ 2024년 부채 비중 대폭 감소 후 2025년 자기자본비율 80.9% 수준의 안정 흐름 유지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37.1억 원 축소된 982.7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65.3억 원 감소한 188.0억 원, 자본총계는 28.2억 원 증가한 794.7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27.7%p 상승한 202.0%, 부채비율 22.4%p 하락한 23.7%, 자기자본비율 12.4%p 상승한 80.9%).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34.4억 원 축소된 848.2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26.0억 원 감소한 162.0억 원, 자본총계는 108.4억 원 감소한 686.3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2.6%p 상승한 204.6%, 부채비율 0.1%p 하락한 23.6%, 자기자본비율 80.9%).

2026년 1분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115.7억 원 감소한 890.4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41.6억 원 감소한 152.5억 원, 자본총계는 74.1억 원 감소한 737.9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31.6%p 상승한 209.0%, 부채비율 3.2%p 하락한 20.7%, 자기자본비율 2.2%p 상승한 82.9%).

그림 9.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2.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216.2	241.0	122.3	38.1	9.8
매출액증가율(%)	14.0	11.5	-49.3	-4.1	-74.2
영업이익	-63.0	-64.7	-80.2	-21.4	-13.8
영업이익률(%)	-29.1	-26.8	-65.6	-56.2	-140.9
순이익	-216.5	-213.8	-174.1	-46.3	50.7
순이익률(%)	-100.1	-88.7	-142.4	-121.6	516.5
부채총계	353.2	188.0	162.0	194.1	152.5
자본총계	766.5	794.7	686.3	812.0	737.9
총자산	1,119.78	982.7	848.2	1,006.1	890.4
유동비율(%)	74.3	202.0	204.6	177.4	209.0
부채비율(%)	46.1	23.7	23.6	23.9	20.7
자기자본비율(%)	68.5	80.9	80.9	80.7	82.9
영업현금흐름	-2.6	-74.2	-102.3	-14.5	4.1
투자현금흐름	-37.4	13.8	-35.3	-61.2	35.5
재무현금흐름	-23.7	81.9	59.3	77.4	-1.7
기말 현금	79.0	100.5	22.3	102.2	60.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아이오케이이엔엠(078860)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콘텐츠 IP 다각화와 신규 종속회사 (주)메시브이엔씨 합류 등을 통해 매니지먼트 사업의 확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작사업은 드라마·영상 콘텐츠 라인업 확대를 통한 외부 수주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사업등은 신규 투자 포트폴리오 발굴을 지속하고 있어 매출 다각화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종속회사 단위의 사업 체계 정비 및 비용 구조 효율화 흐름이 중장기 수익성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2026년 3월 정관변경을 통해 전력 생산·저장·공급·판매 및 거래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신규 추가하였으며, 이는 콘텐츠 사업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영역 진출로 평가된다.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K-콘텐츠 수요 확대 흐름은 동사의 제작사업 외부 수주 확보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동사의 2026년 매출은 130억 원이 전망되며, 비용 효율화 및 신규 사업영역의 매출 기여 본격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회복 흐름이 기대된다.

그림 10.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연도별 실적 및 전망	2026년 실적 및 전망																									
	<table><tr><th>항목</th><th>2023</th><th>2024</th><th>2025</th><th>2026E</th></tr><tr><td>매출액</td><td>216.2</td><td>241.0</td><td>122.3</td><td>130.0</td></tr><tr><td>엔터사업</td><td>213.6</td><td>191.1</td><td>98.3</td><td>100.0</td></tr><tr><td>제작사업</td><td>1.9</td><td>42.9</td><td>13.9</td><td>20.0</td></tr><tr><td>투자사업 등</td><td>0.7</td><td>7.1</td><td>10.1</td><td>10.0</td></tr></table>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216.2	241.0	122.3	130.0	엔터사업	213.6	191.1	98.3	100.0	제작사업	1.9	42.9	13.9	20.0	투자사업 등	0.7	7.1	10.1	10.0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216.2	241.0	122.3	130.0																						
엔터사업	213.6	191.1	98.3	100.0																						
제작사업	1.9	42.9	13.9	20.0																						
투자사업 등	0.7	7.1	10.1	1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브랜드 재정비와 콘텐츠 IP 확장을 통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전환 가속화

동사는 대표이사 체제 정비와 사명 변경을 계기로 독립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아티스트와 콘텐츠 IP를 결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박지훈 아시아 투어 흥행 성과와 150억 원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 경영 체제 전환 및 독립 경영 기반 확보

동사는 2026년 3월 27일 공시를 통해 박영석·최석우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사명도 스테이지원엔터에서 아이오케이이엔엠으로 변경하여 기업 정체성을 재정비하였다. 이후 2026년 6월 10일 박영석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최석우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기존 그룹 체제 해체 과정에서 자율경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조직 운영의 명확성과 브랜드 정체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석우 단독대표이사는 코스피 상장사(주비비안) 및 관계사(주광림)에서 장기간 실무·관리 경험을 축적한 경영 인력으로, 조직 운영 및 사업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영체제 구축에 강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사명 변경은 기존 엔터테인먼트 사업 기반 위에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대외 신뢰도 제고와 사업 확장 기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 글로벌 공연 사업 가시적 성과 및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 완료

동사가 주관한 박지훈 아시아 팬콘서트 투어는 서울 예스24 라이브홀 공연이 예매 오픈 직후 1분 만에 전석 매진된 데 이어, 서울 킨텍스 공연도 예매 시작 3분 만에 전석 매진되었으며, 티켓 예매 대기자 수가 3,000명을 돌파하는 높은 시장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후 말레이시아, 베트남(호치민·하노이)으로 이어진 아시아 투어도 현지 팬들과 미디어의 호평을 받으며 직접적인 공연 매출을 창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동사가 사명 변경 후 글로벌 공연 기획 및 제작 사업으로의 비즈니스 다각화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2026년 6월 25일에는 콘트라31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80억 원 및 기타자금 70억 원, 총 15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신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납입 후 발행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8월 19일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거 그룹 구조에서 발생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각 기업이 독립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콘텐츠 IP 확장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동사는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결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구조를 기반으로 음악, 영상, 공연, 디지털 플랫폼 등 다방면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보유 중인 26개 슈퍼 IP 기반 트랜스미디어 전략과 소속 배우 캐스팅·자체 제작 연계 구조를 강점으로 하여 OTT, 숏폼 등 신규 플랫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 아티스트 영입 및 스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아티스트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5년 진출한 축산물 유통 사업(MK커머스 연계)을 통한 신규 매출원 확보와 전력산업 관련 부품·방산 관련 산업 진출 모색 등 사업 다각화도 추진 중이며, 향후 음악, 영상, 공연, 디지털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하여 수익성 회복과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오케이이엔엠(07886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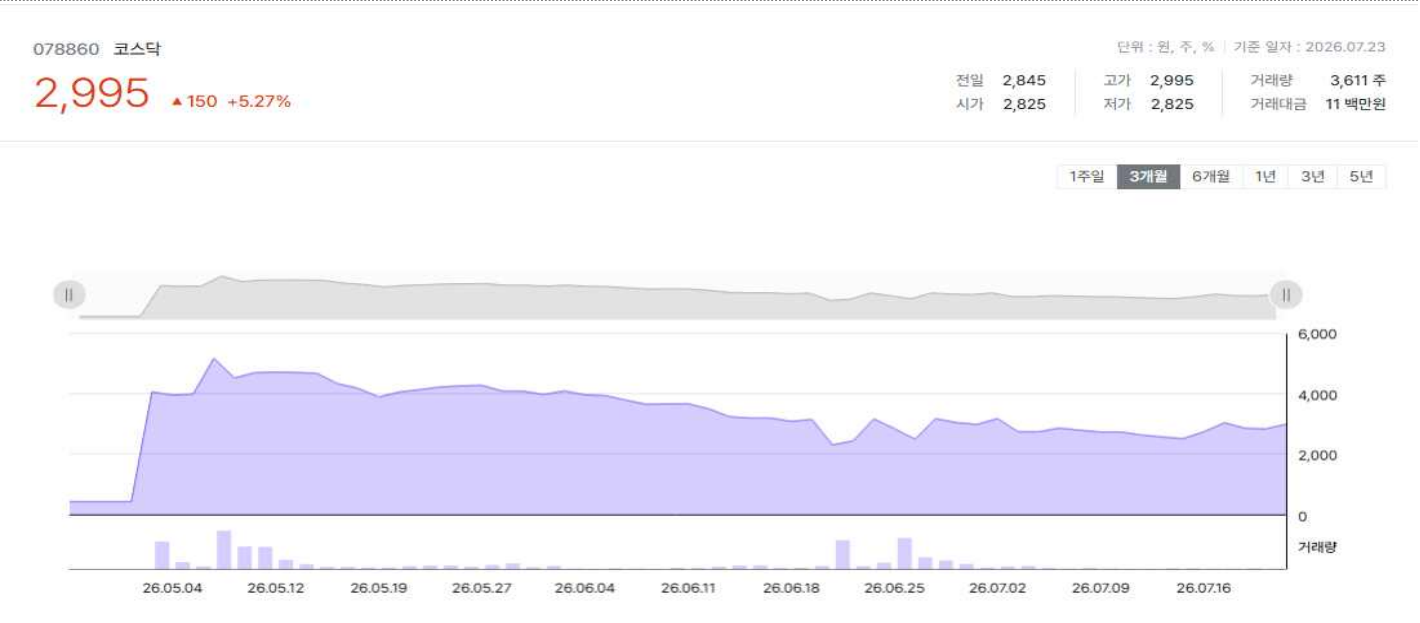
☒ 생성형 AI 답변 :
“아이오케이이엔엠은 최근 15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과 '박지훈 아시아 투어' 흥행을 통해 신사업 확장을 위한 탄탄한 자금을 조확보하고 글로벌 공연 매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독자적인 경영 행보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존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을 넘어 글로벌 공연 기획·제작 중심의 사업 다각화와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기대된다.”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07.2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아이오케이이엔엠	X	X	X